<미역국> 남자 배우 지정 대본

오디션 지원용입니다. 외부 공유를 삼가 주세요.

S#1. 검은 화면

암전 상태. 휴대폰 진동음이 길게 울리다 끊긴다. 통화가 연결된다.

여자 (V.O.) (서운한 목소리) 아직 자?

남자 (V.O.) (잠이 덜 깬 목소리) …몇 신데.

여자 (V.O.) 열 시 넘었어.

남자 (V.O.) 어.

여자 (V.O.) …할 말 없어?

남자 (V.O.) (하품 섞어, 귀찮은 듯) 뭘.

여자 (V.O.) (장난스럽게) 오늘 같은 날엔 뭐 먹더라?

남자 (V.O.) …아. 미안. 생일 축하해.

(잠시 정적)

여자 (V.O.) (애교 섞어서) 그럼 미역국 끓여줘. 소고기 많~~이 넣어서!

남자 (V.O.) 사 먹어.

여자 (V.O.) 아, 끓여줘.

남자 (V.O.) (한숨) …알았어. 끊어.

여자 (V.O.) 사랑한다는 말은—

뚝. 통화가 끊긴다. 짧은 정적.

S#5. 남자의 집, 식탁 — 낮

2인용 식탁. 남자가 상을 차린다.

밥솥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대충 퍼서 그릇에 담는다. 모양도 다듬지 않는다. 김치는 작은 접시에 쥐꼬리만큼 덜어 놓는다. 국을 끓일 때와 달리 손길에 정성이 없다.

미역국을 한 그릇 뜬다. 그릇은 한 사람 몫뿐이고 숟가락도 한 벌이다.

남자는 국그릇과 밥공기를 맞은편 자리 앞에 놓는다. 그러고는 자기 자리에 앉는다. 자기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김이 오른다. 정적.

여자 (V.O.) (가볍게, 투정하듯) 소고기는? 미역국에 소고기가 없잖아.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비어 있는 맞은편 의자를 멍하니 바라본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린다. 그는 닦지 않는다.

한참 뒤 남자가 손을 뻗어 맞은편의 국그릇과 밥공기를 자기 앞으로 천천히 끌어온다.

숟가락을 든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다. 다시 한 숟갈.

어깨가 떨리기 시작한다. 크게 소리 내어 울지 않는다. 입에 국을 문 채로 억누르며 운다. 콧물이 흐르고 숨이 막혀 꺽꺽거리면서도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는다. 밥을 국에 말아 퍼먹는다.

남자 (V.O.) (무심하고 귀찮은 말투) 나 소고기 싫어하잖아.